

대·중기 상생협력 통해 납품 제품 판로개척 지원

전북중기청·전북조달청, 공공조달 상생협력 참여기업 신청접수... 내달 19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 이하 전북조달청)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 신청을 오는 4월 19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개발·생산·시공하는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물품·서비스 융합, 중소기업의 시공 역량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신설한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에 분리해 운영했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게 되며,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협력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 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사 분야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과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성과 활용과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면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등 총 3단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상생협력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량강화과제의 경우 제도 참여 우수기업에게 종합심사나찰제 등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초기 판로시장을 제공하고 국산 소재부품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 건설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확보하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중기부-조달청 합동 공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 (<https://www.smpg.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평가 등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에(042-712-5631~5)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와 대자인병원은 30일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사회복지 증진 적극 협력 약속

전주상의-대자인병원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

지역 종합경제단체인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와 대자인병원(병원장 이병관)은 30일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자인병원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일반 진료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회원사 임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 기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은 "지역 상공발전과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공업계 종사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코로나 위기에 지역경제가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주상공회의소와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고! 고! 챌린지' 동참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제품 사용을 약속합니다"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이 30일 생활 속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인 '고! 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일상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말아야 할 실천 한가지와 꼭 실천해야 할 한가지를 약속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윤방섭 회장은 SNS를 통해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 후, 다음 릴레이 캠페인 참가자로 진교훈 전북경찰청장과 서한국 전북은행 후임 행장을 지목했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요즘 우리는 계절마다 이상기후 현상을 경험할 정도로 지구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탈(脫)플라스틱 운동을 통해 지구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네트웍스 전북, 영농철 대비 영농차량 무상점검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지사장 김태호)와 남원원에농협(조합장 감용현)은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나눈경영의 일환으로 영농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 대상 차량은 영농에 필요한 모든 차량으로, 엔진오일 등 필수 정비사항 무상점검과 보충, 와이어 브러쉬, 워셔액 등 일부 소모품을 무상 교환해 영농 편의를 제공했으며, 250여대의 차량이 방문해 농업인과 조합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용현 조합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영농철 준비에 차질 없게 영농차량 무상점검에 감사하다"며 "올해 풍년농사를 짓는데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태호 지사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영농차량 무상점검은 물론 노후 주택 환경개선공사,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 실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지부-LX 남원 자원봉사 활성화 협약

농협 남원지부(지부장 권오정)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채규은)는 30일, 도농교류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남원시 농업? 농촌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약하였으며, 협력분야는 도농교류와 농촌봉사 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 협력 및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 재난재해 등 사회적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연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기-지자체 상생 이끌어낼 것"

채정묵 신임 전북중기회장 포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에 채정묵 회장(전북화학 대표(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 위촉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계의 대표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13명의 지역중소기업회장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중소기업회장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 협동조합과 중소기업계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현안 해소 및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채정묵 중소

기업회장은 2015년부터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이 시장을 맡아 합성수지업계의 공동 구·판매 사업, 기술지도 사업, 조직강화 사업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전북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채정묵 신임 회장은 "전북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지자체간 상생과 협업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발전적 처방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지역 내 개별사업간 연계 강화

새만금청, 11개 관계기관 참여 '사업관리협의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관리협의회'를 30일 개최했다.

'사업관리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산림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11개 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원만한 정보공유와 신속한 투자자 대응, 투자유치 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와 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사업장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토대로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투자유치와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에 실패를 높이기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수변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와 새만금공사가 특별팀에 합류했다.

이날 TF회의에는 올해 추진할 핵심 사업별 투자유치 전략과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특별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별팀은 매일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원활한 정보공유와 신속한 투자자 대응, 투자유치 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와 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사업장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토대로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투자유치와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524만·하한 33만원으로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오늘 관보에 게재됐다.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1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관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간척지 땅심 높이는데

'부산석고'가 효과적

칼슘 함량 145% 높고 나트륨 60% 낮아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간척지 땅심을 높이는 데 부산석고가 효과적이라고 30일 밝혔다.

간척지 토양은 일반 토양에 비해 염분 농도, 산도(pH)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반면, 칼슘 함량은 매우 낮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간척지에서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 중 염분 농도를 작물 재배가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동시에 칼슘 함량은 높이고 나트륨 함량은 낮춰야 한다.

부산석고는 인광석을 황산으로 처리해 인산 비료를 제조할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석고를 말하며, 비료공정 구역에 석회질 비료로 설정돼 있다. 부산석고는 간척지에서 토양의 산도(pH)를 높이지 않으면서 칼슘 함량을 높일 수 있으며, 토양의 입단 형성을 촉진하고 투수성을 높여 쉽게 염분 제거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산석고를 간척지 토양에 사용하면 작물 생육에 필수 양분인 칼슘과 황을 공급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새만금간척지에서 부산석고 10t(a)당 400kg을 사용해 토양개량 효과를 시험했다.

그 결과, 토양의 칼슘 함량은 대조 토양에 비해 145% 높아지고, 나트륨 함량은 60%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석고 사용량은 토양분석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며, 보통 10아르당 300kg 정도가 적당하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이병규 팀장은 "간척 농경지에서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땅심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산석고를 활용하면, 칼슘이 부족한 간척지 땅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편리하게 신속하게

전은 JB장기카드대출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무서류, 신속함을 강조한 JB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JB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특별한 서류제출 없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최대 36개월간 원리균등분할상환하는 상품이다.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은 고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북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모바일웹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9.53%~최고 연 17.08%(2021년 3월 31일, 36개월 상환기준)로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전북은행은 JB장기카드대출(카드론) 출시를 기해 500만원 이상 대출 후 1개월 이상 유지하고 첫 번째 달 원리금을 납부한 고객에게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진행한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신속한 대출로 고객 편리함 위해 출시한 이번 상품으로 조금 더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JB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과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마트 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